

2019 하계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Ewha Friends in Cambodia)

캄보디아 프놈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팀



2019. 7

 김*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한 후로 줄곧 가고 싶었던 해외 교육 봉사는 저학년 때 무작정 신청하여 가는 것이 아닌 다양한 봉사 경험을 가진 뒤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싶었기에 3학년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다. 좋은 기회로 뽑혔고 그 중 물품팀 팀장의 직책을 맡아 좀 더 책임감 있게 이화봉사단 캄보디아 해외 교육 봉사를 다녀왔다. 그동안 해외 교육 봉사는 다른 센터들을 통해 여러 번 가본 경험이 있었지만, 벗들과 함께 하는 첫 봉사 활동이라 그런지 더욱 뿌듯하고 행복했다. 비록 학기와 겹쳐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지만, 그 가운데에 모든 팀원이 합심하여 봉사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점이 아직도 매우 감명 깊다.

첫째, 교육 봉사의 기획이 매우 훌륭했다. 이번 이화봉사단의 캄보디아 교육 봉사 기획은 기획팀의 주도하에 20명 모두가 의견을 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주제, 세부 주제 및 활동들을 정하는 데에도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예비 활동 프로그램 기획까지 포함하면 가기 직전의 순간까지도 수정된 부분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획팀만 상의한 것이 아닌 일차별로 물품팀, 기록팀까지도 기획 수정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 센터 학생들의 연령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두를 만족시킬 실험과 주제를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참신하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획을 했다. 특히 센터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캄보디아 아이 중 장난감을 살 돈이 없는 친구들에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을 선물하는 것은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대주제 아래에 '인간, 땅, 바다, 생물, 하늘'의 5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짜임새 있게 교육 봉사를 진행한 점은 단원들 모두가 만족하는 부분이다.

둘째, 팀워크가 훌륭했다. 20명이라는 인원은 꽤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센터 내에서 20명 선생님 모두가 함께하는 것은 훌륭한 팀워크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준비 기간 2주부터 귀국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이화봉사단의 팀워크는 매우 훌륭했다. 단 한 명도 개인 활동으로 인해 팀 활동에 지장을 준 사람 없이 모두가 열정적으로 봉사에만 집중하였다. 특히 작은 센터 내에서 보조교사, 주교사, 준비물 교사의 동선이 매우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다 같이 모여 완벽히 숙지할 때까지 자지 않고 연습하여 본 수업에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었다. 수업하고 피곤한 몸이었을 텐데도 다들 자신의 역할이 완벽히 숙지 될 때까지 질문과 피드백을 계속 이어가며 연습했던 팀원 모두가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분명 적지 않은 인원이라 불만도 있을 터인데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봉사 활동에 전념한 것이 이번 이화봉사단의 가장 큰 장점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못지않게 열심히 함께해준 학생들이 매우 고마웠다. 1일차 선생님이 그 전날까지 고민했던 점은 아이들의 반응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소통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지 않아 지루해할까 봐 매우 걱정하였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언어의 장벽은 별것이 아니었다. 아이들 모두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몸짓으로 우리와 소통해주었다. 이 점은 선생님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노력해주었다. 분명 낮은 이방인임에도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미소와 대화로 선생님들과 함께했다. 단순히 일방적인 소통과 교육이 아닌 나도 아이들로부터 배우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준비과정부터 많은 것이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활발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많은 힘을 내어 마지막 봉사 활동까지 무

사히 마칠 수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을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교육 봉사를 하러 갔지만 도리어 많은 것을 배우게끔 한 학생들이었고 그들 앞으로의 날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마무리했다.

 김*경

이화봉사단을 알게 된 건 이화에 입학한 후 첫 방학을 보내던 새내기 시절이었다. '방학 때 무슨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게, 동아리 선배는 이화봉사단을 추천해주셨다. 며칠 뒤 해외로의 파견을 앞두고 있다고 말한 선배는 설렘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화봉사단이 무엇이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주셨다. 당시 여름방학 이화봉사단은 이미 선발이 마무리된 후였기에, 다음 일정을 기다리며 아쉬움을 달랬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찾아오고, 이화봉사단 국내봉사에 지원하여 5박 6일간의 중학생 대상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큰 보람과 벽참을 느꼈다. 국내봉사를 마무리 짓고 나니, 더 큰 목표를 꿈꾸게 되었다. 바로 '해외봉사'였다. 살면서 꼭 한번 해외봉사를 가보는 것이 오랜 버킷리스트였다. 어릴 적부터 다큐멘터리를 보기를 좋아했던 나는, 제 3세계를 대상으로 한 봉사 다큐멘터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 학기에 이화의 필수교양인 '나눔 리더십'을 수강하면서 해외봉사에 대한 기존의 관심을 '실천'으로 옮기길 마음먹었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소개해주신 대학생들의 해외봉사 다큐멘터를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에 응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화봉사단 캄보디아 봉사단원으로 지원, 선발되어 2학년 여름방학에 7박 8일간 캄보디아를 다녀오게 되었다. 봉사기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ESS (Ewha Social Services) 로, 이화여자대학교가 캄보디아에 최초로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기관이었다. 올해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되어 운이 좋게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발대식에서 전 봉사단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지고, 종강 직후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준비에 매진했다. 모든 봉사단원들과 담당 선생님이 2주간 매일같이 만나며,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4일차 생물팀과 물품팀으로 활동하였는데, 특히 4일차의 교안은 수업 전날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던 터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다. 성인이 되고서는 해외에 처음 나가보는 것이라 낯선 곳에 대한 긴장감에 떨리는 마음이 배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함께 준비한 벼들과 함께여서 힘을 낼 수 있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첫날 방문한 ESS는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 다소 조용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튿날, ESS 센터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로 가득 차 금세 밝고 명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은 크고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었다. 초반의 걱정과는 달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귀 기울였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해주었다. 설명교사와 주교사를 담당했던 4일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많은 고민들과 불안감이 있었지만, 봉사단 벼들의 격려와 이전 일차를 거듭하며 얻은 피드백들을 통해 일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센터 선생님과 단원들로부터 '퍼펙트'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던 순간에는 감사함에 눈물이 나기도 했다. 20명 단원들의 땀과 사회봉사팀 선생님들의 도움, ESS 센터 아이들의 참여, 통역팀 선생님들과의 협동까지, 그 무엇 하나라도 없었다면 '2019년 여름 이화봉사단 캄보디아'라는 큰 타이틀을 완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화봉사단을 통해, 성과만을 중시했던 이전의 봉사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봉사·내가 꿈꿔왔던 봉사를 경험해볼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화봉사단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

는 말이 있듯이, 작지만 따뜻한 나의 손길이 힘이 되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은

이번 해외봉사는 캄보디아에서 보내는 날이 쌓여갈수록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배우고 왔다.”는 말이 선명해지는 시간이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이화봉사단에 지원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졸업 전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함께 교류하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눔으로써 얻는 보람을 느끼고 싶었다. 모든 활동이 끝난 지금, 이번 캄보디아 봉사활동이 나의 대학 생활의 정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화 봉사단은 그 시작부터 신선한 경험이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화 봉사단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봉사 자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봉사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해준 시간이었다.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 20명이 만나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의견을 내며 백지상태에서 하나씩 틀을 세워 나갔다. 캄보디아 출국 전 의견을 내고 수렴하는 모든 과정의 집합체인 교사용 워크북을 받았을 때 그간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결실을 맺었다.

기록팀, 물품팀, 기획팀, 그리고 개인 수업팀별로 활동할 때 기록팀 팀장을 맡은 과정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다. 이번 기록팀의 일은 인원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또한, 팀원들의 능력이 다 다르고 각 일이 요구하는 능력이 달라서 알맞은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초반에는 팀원 중 한 명이 너무 부담을 느끼게 일을 배정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처리를 진행하게 된 때가 있었다. 그래도 함께 의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해준 기록팀 팀원들에게 고맙다. 나와 함께 수업을 진행한 4일차 친구들에게 고맙다. 4일차 팀은 다른 팀에 비해 수정이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성도 높은 수업을 위해 노력했고 거기에 다른 단원들의 협동심이 더해져 4일차 수업 날 현지 선생님들께 Perfect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내가 준비해 온 것들을 많이 나누고 오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5일간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내가 아이들에게 받은 것이 많았다. 수업을 하면서 마주한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새로운 것을 접할 때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과일들의 이름이 써진 책을 함께 보면서 내게 크메르어로 과일들의 이름을 알려주던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학생이었다. 내가 어설픈 크메르어로 따라 하는 모습을 보며 더 많이 알려주려고 했다. 그 순간 함께 배우는 것의 즐거움과 봉사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센터에서 우리들을 반겨주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었다.

우리 봉사단원들은 매일 최선을 다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봉사단이 해야 할 일이면 함께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수업하고 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에 참여하고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 의논했다. 혼자 일을 하는 것에 익숙했던 나에게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이화 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 큰 과제였다. 사실 처음에는 2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하나의 일을 하는 과정이 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딛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함께하는 것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과정들 속에서 단원들과 더 친해져 좋은 인연을 얻을 수 있었다. 뒤에서 더욱 힘써준 리더님, 물품팀과 기획팀 팀장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봉사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시고 단원들의 안전을 신경써주신 계은영 선생님과

안현정 교수님이 있었기에 봉사활동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얻은 것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ESS 센터 학생들이 앞으로도 우리 이화 봉사단원들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노*혜

전환, 이 단어가 이번 여름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봉사활동을 넘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는 또는 시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경험이었다. 토요일부터 시작된 경험은 21살의 내가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먼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 이전에는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해보았다. 같이 간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했던 터라 문화를 경험해보기 보다는 우리끼리의 이야기를 중요시했던 것 같다. 이번 캄보디아 봉사는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캄보디아 봉사센터장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 센터장 선생님께서 캄보디아에서는 빈부격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자신의 장난감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장난감을 만드는 체험이 좋고 또 개인의 것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단순히 어린 아이의 욕심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알게 되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봉사단원들과 고민하여 만든 장난감이 결코 질 좋은 장난감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기도 하였다. 조사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경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한 국가의 속사정을 아는 것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캄보디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상황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다. 또한 마트를 구경하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마트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제품이었다. 사실 의외였다. 한국의 제품이 이렇게 많이 수출된다는 것을 실감한 적이 없었는데 눈으로 보니 새로웠다. 우리나라에만 갇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 이화 봉사단원들과 함께 작업하며 감탄한 적이 수없이 많다. 일이 있으면 남에게 미루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으면 하였고, 캄보디아에 가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단순히 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상태와 컨디션을 많이 생각하였다. 의도적인 배려가 아니었고,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었다. 경직된 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킬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 참 뜻 깊은 경험이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며 관광객이라는 집단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20명의 봉사단원과 2명의 선생님은 관광객의 신분으로 호텔에 묵었다. 그 호텔에는 다른 관광객도 많았다. 하루는 봉사단원들과 작업하기 위해 호텔의 수영장 옆 회의실을 쓰던 중 다른 국가에서 온 관광객 무리로부터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서로에게 어떠한 말을 한 것이 원인도 아니어서 영문도 모른 채 조롱을 듣고 뜨거운 눈초리를 받아내야 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지만 황당함이 앞섰다.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비웃자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인지 몰라 잠자코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는 캄보디아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맞대응하기도, 잠자코 있기도 망설여지는 순간이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서로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는 각 국가에 대한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관광이 활성화 된 이 시대에 서로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단순히 봉사의 장소만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

게 해 준 장소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한층 더 두껍게 해볼 수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류*지

안녕하세요. 2019년도 이화봉사단 캄보디아 교육봉사에 다녀온 류*지입니다. 이화봉사단 해외 교육봉사단 모집공고가 올라왔을 때부터 캄보디아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최종까지 선발되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포르투갈과 에티오피아로 교육봉사 다녀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봉사단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캄보디아 교육봉사는 정말 달랐습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모든 준비 기간 동안 '이화봉사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봉사를 하게 될지에 대한 소개만 간단히 듣고 봉사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화봉사단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강의 등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봉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쉽게 접해보지 못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니 더 준비된 자세로 교육봉사를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역할 팀은 크게 3가지 (기획, 기록, 물품)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팀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고 분리되어 있지만 다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팀에서는 교육봉사 주제와 교안을 짜는 것이 역할이지만, 저희 팀 20명이 함께 큰 주제를 정했습니다. 기획팀에서 주제를 정한 후 다른 팀원들이 따르는 역할만 했다면 저희가 한마음으로 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20명이 각자 목소리를 내어 공통적으로 원하는 교육 주제를 정한 덕분에 팀워크가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기획회의, 워크샵은 학기 중에 진행했고 종강 후에 본격적으로 교육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며 최종 교안, PPT, 워크북을 수없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안을 한 줄 한 줄 외우고 팀원들 앞에서 시연하며 실전 연습도 했습니다. 물론 2주간의 준비 기간이 바쁘고 길게 느껴졌지만, 이러한 과정 덕분에 캄보디아에서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봉사 준비를 다 했다는 마음으로 캄보디아에 도착했지만, 저희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일정 중 폴라로이드로 학생 개인 사진을 찍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폴라로이드 플래시가 학생 눈에 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에서 겪을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지만, 예상도 못한 피드백이 들어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은 변수에 대처하고 담당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저희는 매일 밤 회의를 했습니다. 팀원 20명 모두 설명 교사 또는 주교사가 아닌 날에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교안을 수정하고 활동을 고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다음 날 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나날이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완벽하다는 평가까지 해주셔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교육봉사를 하며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캄보디아 아이들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 가기 전에 크메르어 단어와 표현 몇 개를 배우고 갔습니다. 물론 통역사님이 계시지만, 간단한 표현은 아이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크메르어 발음이 다 틀려서 아이들이 웃고 고쳐주는 모든 시간이 저희가 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일차 수업이 끝나고 담당 선생님께서 저희가 학생들의 이름을 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이름도 잘 외우지 못하는데 60명이 넘는 학생들의 크메르어 이름을 과연 외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걱정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학생들의 이름을 외운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 교육봉사는 2019년 제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에 대해 많이 배우고 팀원들과 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박*원

대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일이 해외 봉사였다. 학교 홈페이지에 봉사 프로그램을 찾다가 이화봉사단을 알게 되었고 고민 하지도 않고 바로 캄보디아 교육 봉사에 지원했다.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게 되어 다양한 과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과 봉사하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해외 봉사를 하고 싶었던 나에게 캄보디아 교육 봉사는 소중한 기회로 다가왔고 내 인생에 있어 이번 봉사가 커다란 깨달음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캄보디아에 갔다.

‘봉사의 주체는 언제나 받는 사람.’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봉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나도 모르게 캄보디아 봉사를 통해 원하는 것이 있었나보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항상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할 일을 하는 무기력이 깊게 전제된 나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다. 캄보디아 봉사를 통해 깊게 내재된 무기력을 타파하고 속으로 신선한 내면의 깨달음을 얻기 기대했다.

하지만 봉사를 하고 난 후에도 나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봉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 정신을 실천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지만 ‘나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깨달음’을 찾지는 못했다. 주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냥’으로 시작해서 ‘아이들이 밝고 순수했다.’, ‘같이 봉사를 준비한 사람들이 책임감이 넘치고 멋있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말하지 못할까.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가벼운 자책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생각을 바꿨다. 봉사의 원칙은 무대가성 자발성. 날씨가 더워 어지러워도, 모기에 물려 다리가 하루 종일 간지러워도, 호텔의 위생여부가 의심스러워도 결국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캄보디아 봉사이기 때문에 다 합리화가 가능한 불편함이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지원한 봉사였다면 내가 이기적이다. 물질적인 것에 욕심은 없지만 더 고귀한 정신적인 가치를 봉사를 통해 얻고 싶었던 것 같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나에게 익숙한 미술 재료인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다양한 색깔로 마음껏 그렸고 아이클레이, 플레이콘 등 시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재료들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나에게서는 당연한 미술 활동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 이처럼 봉사의 중심을 ‘나’가 아닌 ‘아이들’에게 맞추니 새로운 것이 많이 보였다. 현지에서 통역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평소에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지 않는데 우리가 기획한 활동 중에 아이들이 집에 갖고 가서도 계속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아서 좋다고 하셨다.

초점을 나가 아닌 아이들에게 돌리니 깨닫는 점이 많았다. 캄보디아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뿐만 아니라 이화봉사단 단원들과 처음 만난 시간부터 프로그램 기획, 봉사 후 평가회의를 하는 시간까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이었다. 과도 달라 어쩌면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마주칠 일 없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아래 모여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일은 정말 멋진 것 같다.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서 정말 감사하다.

계속 봉사를 하고 싶다. 국내 또는 국외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고,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야로 나눔을 전하고 싶다. ‘봉사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말이 애초에 내가 원해서 지원하는, 나를 위한 말 같아

서 자기중심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던진 질문에 관해 즐거운 고찰을 하면서 봉사 정신을 계속 실천하고 싶다. 꾸준히 봉사를 하다보면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결론에 다르지 않을까 싶다.

박*은

5월부터 기획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방학 후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7월에 캄보디아 ESS에 갔다. 캄보디아는 습하고 더웠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다음날 센터에 갔는데 그때 진짜 캄보디아에 봉사를 하러 왔다는 것이 실감 났다. 그리고 곧 아이들을 만나게 될 생각에 긴장되었다.

본격적인 봉사 첫째 날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시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하루에 오전과 오후로 나뉘서 수업을 두 번씩 했는데 오전에는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오후에는 상대적으로 어리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했다. 우리가 낯설었을 텐데 아이들은 웃음이 많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다소 부족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수업을 즐겁게 따라와 주었다.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수업이면 어쩌나, 혹시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말도 잘 따르고 열심히 참여해서 고마웠다. 서로 언어는 안 통하지만 몸으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했다. 이때 학교에서 캄보디아 유학생분이 크메르어 수업을 해주셨던 것이 정말 유익했다. 인사와 칭찬하는 말, 앉아주세요 등 수업하는데 배운 크메르어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크메르어 이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한 것도 아이들과 친해지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매일 수업이 끝나고 센터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나누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봉사단원들끼리 평가 회의를 했는데 이 시간 덕분에 매일매일 개선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팀워크였다. 20명이 큰 갈등 없이 1주일간의 수업을 준비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아이들을 배웅했다. 그리고 궁금한 표현들을 센터 선생님들께 여쭙보며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은 우리의 크메르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지쳐있어도 각자 맡은 역할들을 똑 부러지게 잘 해내서 팀원들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아직도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이 자기보다 훨씬 큰 가방을 메고 센터에 들어오는 모습, 수업에 참여하고 장난치는 모습,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을 태워 집에 가는 모습 등이 기억난다. 마지막 날 헤어질 때 울컥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서 꼭 참았다.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하루 수업을 하고 끝난 것에 아쉬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그만큼 좋아해 줘서 너무 뿌듯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봉사단원들도, 캄보디아 센터 선생님들도, 센터 아이들도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았던 봉사였다. 특히 몇 달간 함께한 봉사단원들과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이런 일들을 했었지 하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안*수

고등학생 때부터 가보고 싶었던 해외봉사를 드디어 다녀왔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알려주고, 함께 놀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지원시기를 매번 놓치다가 우연히 공지사항을 봤을 때 해외 이화봉사단 지원공지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바로 신청했다. 봉사활동 경험이 많지 않아서 걱정했지만 동아리 내에서의 기획경험과 봉사에 가고 싶은 마음을 열심히 어필하여 최종합격을 했다.

기획팀, 기록팀, 물품팀 중에 기획팀에 들어가서 교안 작성을 맡았다.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1교시에 만나서 기획팀 회의를 진행하고, 과제와 교안 작성을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우리가 진행할 활동을 수월하게 정할 수 있었다. 또한 어려운 전공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마치 휴식처럼 느껴졌고, 캄보디아 봉사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출국 전까지 2주 동안 매일 학교에 나와 교육봉사를 준비했다. 교안대로 시연을 해보고 계속 수정을 거듭했다. 아이들을 위한 워크북도 만들고, 수업 때 보여줄 피피티도 만들었다. 영어로 만들어진 교안도 꼼꼼히 외우고, 물품도 소분하여 준비했다. 출국 일주일 전부터는 단원들 앞에서 팀별로 시연을 하면서 보조교사들의 역할을 익혔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9시까지 학교에 와야 했고, 많은 시간을 봉사 준비에 투자해야 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봉사를 마치게 된 것 같다.

센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느 나이대의 아이들이 올 지, 몇 명이 올지, 센터의 크기나 시설이 어떠한 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내가 직접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떨렸고, 동시에 많이 설레었다. 막상 가보니 센터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에어컨도 있고, 깨끗했다. 아이들은 5살의 어린 나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었다. 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에 따라와줘서 기뻐다. 통역을 해주시는 센터 선생님들도 미리 수업을 준비해주시고 아이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번 봉사를 준비할 때부터 마무리까지 참 설레고 새로운 것들이 많았다. 다양한 전공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만났고, 처음으로 교육봉사를 하게 되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가봤고, 낯선 날씨에 힘들기도 했지만 아침에 닭이 우는 소리에 깨는 것도, 햇빛이 짹짹하게 내리쬐는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려 시원해지는 것도 새롭고 신기했다. 센터에 아이들이 올 때마다 아이들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반겨주었고, 수업 중에는 언어가 달라 소통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크메르어로 계속 말을 걸어주었다.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참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에게 참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캄보디아 이화봉사단을 추천하고 싶다.

안*은

인생 첫 해외봉사라서 설렘 반, 걱정 반을 안고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교육 봉사 경험이 많았지만, 한국과 달리 말도 안 통하는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뜻깊은 교육을 해줘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 스무 명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준비했다. 사실 이제까지 교육봉사 중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정말 많은 시간동안 준비했다. 선생님께서 준비하는 동안 “가서 우리가 준비한 것의 80%만 보여주어도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나는 가기 전에는 120%를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수업을 해보니 통역도 아이들도 다 우리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생각하여 글씨를 쓰는 워크북 활동도 있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글씨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워크북 활동을 수정해야만 했었다. 또한, 통역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매끄럽지 않아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어 지체되기도 했다. 그때서야,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아무리 100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변수가 생겨 계속 바뀔 수밖에 없었다. 첫날 수업에서는 멘붕이었다. 보조교사였던 나도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수업 이후 정말 오랜 시간동안 스무 명이 함께 한 방에 모여 계속 논의하였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실험에서 안전하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등 사소한 의문까지 그 날 모두 함께 의논했다. 그 이후 이튿날부터 훨씬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캄보디아식 박수법도 만들었다. 또한, 보조교사, 주교사들도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숙지하여 스무 명이 분담하여 함께 수업했다. 중간 중간에 생겼던 변수들이 우리의 계획을 바꿔놓았지만, 어쩌면 이 변수들로 인해 우리의 수업이 더 캄보디아 아이들에 맞게 변화하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처음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우리를 정말 연예인인 것 마냥 격하게 반겨주었다. 우리의 이름을 차례대로 불러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하이파이브를 알려주기도 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선생님일텐데 먼저 다가와주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아이들에게 고마웠다. 가끔은 정말 낮을 가리는 친구도 있었다. 삼일 내내 울거나 옆 구석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마지막 수업에서야 미소를 보이고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더 보고 싶었지만 우리의 수업이 5일 밖에 되지 않아 조금 아쉽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는 ‘티나’ 라는 친구였다. 그 친구 옆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그런 접점이 없었는데도 티나는 이튿날부터 계속 쫓아 다녔다. 수업 중 계속 뒤를 돌아보며 인사해주기도 하였고 사진 찍을 때 마다 꼭 자기 옆에 앉으라고 끌어 당겼다. 만들기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꼭 내 이름을 써주었다. 먼저 다가와주고 계속 나를 신경써줘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

가기 2주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자고 준비했던 수업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피곤했던게 다 잊혀질 정도로 행복했다. 아이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준 것 같다. 캄보디아의 문화에 매료되기도 했고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대학 생활 중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오래 남을 활동이었던 것 같다.

오*흔

처음 이화봉사단을 지원할 때 꼭 선발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서류와 면접 모두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다. 이화봉사단에 선발되어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을 할 때만 해도 내가 정말 캄보디아로 봉사를 간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특히나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나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해외 교육봉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고 기대가 되었다.

기획팀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기획해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주제(테마)를 정하는 것부터 상세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막하고 부담스러웠다. 특히 캄보디아 아이들의 나이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단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주제와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었다. 또한 출국 전 2주간의 준비 기간 동안 최대한 실전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물품 준비 등의 현실적인 제한이 있어 실전과 똑같이 수업 시연을 못해본 것이 조금 아쉬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캄보디아에 도착하였을 때,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캄보디아의 덥고 습한 기후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수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다. 수업을 하는 5일 내내 생각했던 것보다 은근히 많이 긴장됐다. 특히 내가 설명교사와 주교사를 맡았던 3일차 수업 날에는 너무 긴장돼서 새벽 일찍 일어났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의견을 모아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주고 따라와 주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고마웠다. 아이들이 나한테 캄보디아어로 말을 걸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대답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내가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느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사전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캄보디아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차이 때문인지 아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하지만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표정, 바디랭귀지만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수업 첫날에는 단원들과 아이들 모두 서로 어색하고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것이 느껴져서 아이들에게 고마웠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마지막 수업 날에는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눈물이 날 뻔 했다.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노력이 잘 발휘된 것 같아서 뿌듯했고, 봉사가 끝나고 나니 훌가분하면서 8박 9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조금은 허무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언젠가는 아이들을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화봉사단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20명 단원 모두의 팀워크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준비 기간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매일 매일 센터와 숙소에서 피드백 시간을 가졌던 것이 매우 유익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힘들었던 만큼 뜻깊고 유익한 경험이었고, 나 스스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봉사활동 자체도 의미 있었지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학과에서 모인 사

람들과 짧은 시간 안에 친해질 수 있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또 참여하고 싶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화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육*진

대학교 재학 기간 중 해외봉사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우연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캄보디아 모집 공고를 보았고 이번 4학년 여름방학이 해외봉사를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지원을 하였다. 이화봉사단은 처음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리더라는 역할까지 맡게 되어 나에게 더욱 의미 있는 해외봉사였다.

이화봉사단 활동이 시작되고, 중간고사 이후 진행되었던 기획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틀을 잡았다. 하루를 전부 비워야 하는 긴 시간의 일정이었지만 모든 단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방향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기획회의를 통해 자연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냈고 5가지 요소 인간, 땅, 바다, 생물, 하늘을 각 수업 팀들의 주제로 정하여 프로그램들을 구체화하였다. 내가 맡게 된 수업은 인간이라는 주제의 1일차 팀에서 아이스 브레이킹과 올챙이송이라는 울동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활동이었다. 아이들을 만나는 첫날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어서 부담감도 크고 그만큼 긴장도 많이 되었다. 막상 센터에 가보니 센터의 구조에 따라서 수업 진행방식 등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과 다른 점들도 많아서 첫 수업에서는 정신도 없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내 수업을 잘 따라 올챙이 송을 귀엽게 추던 캄보디아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은 늘 발생했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매일 저녁 평가회의를 통해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평가회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다음날 수업준비도 더더욱 꼼꼼히 준비하여 하루하루 보다 발전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4일차 센터 평가회의 때 센터 선생님께서 "perfect"라고 하셨던 순간이 가장 짜릿한 순간으로 기억에 남는다. 수업 전날 까지도 교안 상으로 수정사항이 계속 생겨서 늦은 새벽까지 피드백하며 준비했던 수업 팀이라서 더욱 보람이 있었다. 함께 고생한 4일차 수업팀 주교사들에게도 너무나 고맙다. 첫 수업이라 부담감도 컸지만 잘 해내준 1일차 팀원들과 신경 써야 할 준비물들이 가장 많았던 2일차 팀, 유일한 야외활동이라 걱정을 많이 했던 3일차 팀, 전날까지 수정사항이 많아서 늦게까지 고생한 4일차 팀, 재미있는 수업진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준 든직한 5일차 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준 모든 단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번 봉사를 돌아보면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이 남는다. 길었던 준비기간에 비해 캄보디아에서의 봉사기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다. 매일 저녁 평가회의와 다음날 수업준비로 수면시간은 늘 부족했고 더운 날씨에 많이 지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리더로서 팀원들을 더욱 격려하고 복돋아줬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동안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했더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처음에는 많은 팀원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걱정도 많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센터로부터 봉사단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팀워크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전체 평가회의에서 고생 많았다는 한 팀원의 인사에 마음

이 울컥하기도 했다. 사실 리더는 다른 신경 써야할 것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에 보조교사로 참여하는 시간이 적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쉬움도 크지만 내 크메르어 이름을 불러주며 다가와준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들었던 만큼 너무나 값지고 보람찼던 해외봉사였다. 끝으로 이화봉사단을 열심히 챙겨주신 계은영 선생님, 책임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해 준 캄온이화 모든 단원들과 같이 고생한 팀장들에게 한 번 더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아

2019년 5월까지 그저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였던 캄보디아는 7월 이후로 나에게 가장 가슴 따뜻한 나라로 남았다. 이화봉사단에 처음 지원했을 때에는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솟구쳤고 어려운 일도 모두 헤쳐 나갈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봉사를 다녀온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도 쉬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봉사를 위해 기획팀으로서 4월부터 아침 8시에 매주 만나 회의를 하고 또 종강 직후부터 2주 동안 하루의 절반을 헌납할 만큼 내가 내려 놓은 것이 많았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한 만큼 또 다시 선물을 얻어왔다.

봉사로 얻은 첫 번째 선물은 우리 팀원들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이다. 제각각의 전공과 학번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교육 봉사라는 목적 하나를 두고 회의하고 기획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덩고 습한 나라에서 각자의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 또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였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전체 팀원들은 큰 갈등 하나 없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너무나 잘 지냈다. 이 팀원들이 아니었다면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싶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끈끈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고 싶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도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신 선생님과 교수님께도 감사하다. 항상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두 번째로 얻은 선물은 진심은 통한다는 교훈이다. 국적도, 인종도, 나이도, 언어도 모두 다른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했다. 모든 조건은 달랐지만 목표는 한 가지로 같았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남겨 주고, 앞으로 건강하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개인적으로 나는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말은 안 통하지만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를 눈빛, 몸짓, 표정으로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이러한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 또한 학생들의 눈빛, 몸짓, 표정으로 “선생님 재밌어요!”, “선생님 좋아요”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그들이 내뿜는 에너지와 사랑은 그동안 수업 준비를 하며 힘들었던 노고를 싹 잊게 만들었다.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뛰고 웃던 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사람과 진심은 내가 캄보디아 봉사에서 얻은 것들이다. 이처럼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사실 캄보디아에서 9일 동안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건강이 상해서 돌아와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된 시점에서도 아직 장염이 말끔히 낫지 않아 괴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을 내려놓고 온전히 타인을 위해 힘썼던 시간만큼 분명 나에게 긍정적으로 되 돌아온다. 이것이 봉사로부터 내가 배운 교훈이다. 2019년 7월의 캄보디아는 여전히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동남아의 아름다운 나라로 남아있다.

이*정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전반적인 봉사 준비와 활동 방식에 대해 들었을 때,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를 한다는 기대감 반,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반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교안을 모두 외워서 언어가 안 통하는 아이들 앞에서 수업한다는 점에서는 특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암기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현지에서의 번역 역시 원활하지 않아 봉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는 할 것인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교육 봉사를 한다는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나날이 준비를 하며 이런 걱정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막막했던 수업 주제에 관한 회의부터, 제가 해당된 일차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반복된 연습으로 점점 수업을 다듬어 나가면서 처음 느꼈던 막막함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여러 번의 모임과, 출국 2주 전 교안정리와 수업 시연 등을 통해 저는 봉사자로서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집중 준비 기간이었던 2주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는 하였지만, 사실 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부딪힌 시간들이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 수업이 끝나고 했던 피드백들은 수업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업 이후 센터 선생님들과 봉사단과의 피드백, 저녁을 먹고 나서는 봉사자들끼리 피드백을 하고 다음 일차 수업을 준비하며 다음날에는 어떤 점을 수정하여 더 나은 수업을 할 지 고민하였습니다. 소통이 어렵고 낯선 환경임에도 훌륭하게 진행된 처음의 수업은 향후 수업들을 진행하는 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수업의 진행 방식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통역이 생각보다 원활하여 소통 문제에 대한 걱정은 줄었으며 제가 수업할 때도 자신 있고 밝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조별 활동 위주로 돌아가서 제가 들어간 조의 아이들을 도와주며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말하면 얼추 알아듣고 제 말을 따라주는 아이들을 보며 봉사 오길 잘했다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부터 완전 수업 체제에 적응하여 수업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교사가 아니라 준비물교사라 비록 아이들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트랙 만들고 물을 계속 떠오는 등 준비물교사의 비중이 커서 다른 방식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넷째날에는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날이어서 전 날 새벽까지 교안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급하게 교안이 수정되기도 하였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을 해주고 싶어 스스로 붙잡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도 같이 남아 교안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간 덕분에 넷째 날 긴장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수업을 즐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넷째 날 팀원들, 그리고 수업을 도와주었던 다른 팀원들 모두 합이 맞아 수업이 매우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모두 사라지고 그날 밤은 무척 행복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찌된 일인지 배탈이 나서 오전에는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점심을 거르고 잠깐 휴식을 하여 오후를 버텼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 언제 이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고난도 많았지만, 여러모로 보람차고 여운이 남을 정도로 재밌었던 봉사였습니다.

이*연

대학생이 된 후 여러 번의 교육봉사와 이화봉사단 국내 교육 봉사단을 경험하면서 이번 여름 방학에는 조금 더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캄보디아 교육봉사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지원하였다. 캄보디아 교육봉사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단원들이 직접 처음부터 기획하여 교육 봉사를 진행하는데, 이 점이 나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더 간절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면접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이화봉사단에 합격한 후 나는 이화봉사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는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책임감을 배우자"였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오자"라는 목표였다. 두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무사히 봉사를 끝마치고 온 지금 생각해보면 두 가지 목표 모두 성공적으로 이룬 것 같다.

이번 이화봉사단에서 기획 팀장을 맡았던 경험이 정말 소중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수업의 팀플 활동에서도 조장을 맡아본 적 없는 내가 처음으로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7명의 기획팀원들을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해나갔다. 이 과정 속에서 팀원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기획팀은 4월 말부터 5월 한 달 내내 일주일에 2~3번 정도 아침 일찍 만나서 함께 회의하며 캄보디아 현지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고안했다. 과제와 시험으로 많이 피곤했을 텐데 매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었다. 기획팀원들의 성실함과 팀원들 간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기획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기획팀원들뿐만 아니라 리더, 물품 팀원들, 기록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리더 언니, 물품 팀장, 그리고 기록 팀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봉사 준비에 절대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선순위에 두며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도맡아 하며 열정적으로 봉사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이화봉사단 단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봉사 준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캄보디아에서 지내는 9일 동안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외국인인 우리들에게 항상 웃어 주었고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교육봉사를 진행한 5일 동안 아이들은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해주었다. 아직도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작품을 신나게 자랑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손짓, 발짓, 눈빛만으로 소통이 가능했고 아이들과 함께하던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한 행복했다. 5일 동안 천사 같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그 진심은 전달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먼저 다가와 주었다.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오겠다는 나의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왔다. 봉사는 일방적인 나눔이 아니라 서로간의 교류와 소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8일이었다.

이화봉사단을 통해 이화에서의 소중한 인연들을 얻은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단원들 한명 한명을 챙기며 누구보다도 가장 고생한 우리의 대장님 현진언니, 출국 전부터 봉사를 하는 와중에도 매일 고생하며 단원들과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아주었던 기록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하며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뒤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었던 물품팀,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계속 고민을 거듭했던 기획팀이 모두 협력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봉사를 끝마칠 수 있었다. 또한 항상 단원들

의 안전과 건강을 신경써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 계은영 선생님과 안현정 교수님이 함께해주셨기에 오로지 봉사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이화봉사단 활동은 나에게 단순히 성취감이나 보람을 넘어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고 캄보디아에서 행복했던 8일의 여운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될 것 같다.

 이*원

인생에서 두 번째로 하게 된 해외봉사가 또다시 캄보디아여서 좋았고, 새내기로서 의 첫 방학을 이화봉사단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이화봉사단에 기획팀으로 참여하여 세 달 전부터 캄보디아 교육 봉사를 위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출발하는 당일까지도 캄보디아에 봉사를 하러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기획팀 팀원들끼리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다.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캄보디아의 공기는 예상보다 더 더웠고 습했다. 습한 공기를 마주한 순간 캄보디아에 온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ESS를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보니 내가 수업을 하게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면서도 내가 기획한 봉사가 실현될 곳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였다. ESS는 신설된 곳이라 깨끗하면서도 쾌적했고 교실 한 쪽에는 책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어있었다. 센터에 처음 도착해서 캄보디아 현지 선생님과 인사를 주고받고 서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캄보디아 현지 선생님들은 우리가 준비한 수업의 통역을 도와주셨고 매일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시며 우리의 봉사가 성공적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 캄보디아 현지 선생님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봉사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다음 기수 이화봉사단 단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한 날 아이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도록 해주었다. 그랬더니 앞 쪽은 남자아이들이 뒤 쪽은 여자아이들이 나눠서 앉았다. 이러한 자리배치는 수업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앞 쪽의 남자아이들은 활발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뒤 쪽의 여자아이들은 조용했고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수업이 뒤 쪽에는 잘 전달되지 않았다. 그날 피드백 시간에 캄보디아 현지 선생님들에게 이 점이 아쉬웠다고 말하니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자리를 섞어주었다. 아이들의 자리를 섞으니 수업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여자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져서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현지 선생님과 피드백 시간 이외에도 매일 저녁 모든 부원들이 팀장의 방에 모여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늦은 시간에 피드백을 해야 하는 것이 피곤했고 피드백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피드백을 하면 할수록 다음날의 수업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보여서 모든 부원들이 피드백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2일차 수업을 맡았었는데 1일차 수업의 피드백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설명교사 부분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방안으로 집중 박수를 만들어서 2일차 수업에 적용시켰다. 주제가 화석, 화산으로 다른 주제들보다 어려워서 아이들이 설명교사 부분에 잘 집중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었었는데 집중 박수를 만든 후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잘해주어서 고마웠다. 이처럼 우리끼리의 피드백 시간은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

캄보디아에서 교육 봉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크메르어를 쓰고 영어와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우리들과 소통이 되었다. 말을 하는 상황과 몸짓과 표정으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했고 아이들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같았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들이 각자 나름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 경찰, 선생님부터 친구들과 행복하기

살기, 한국에 가보기까지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런 아이들의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게 되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꿈이 좌절되는 세상이 아닌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 준 캄보디아에서의 교육 봉사는 내 앞으로의 대학 생활의 방향에 큰 기여를 할 것 같다.

이*영

이번 2019년 여름 캄보디아 해외 봉사프로그램에서의 나의 역할은 기획팀이자 5일 차 교사였다. 기획팀의 역할은 한 주 동안 진행될 수업의 주제, 활동 등을 구상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았다. 여러 요소 중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수업을 구상하는 것이었다. 교육 봉사를 할 기관의 특성상 다양한 연령대(5살부터 중학생 나이)의 학생들이 센터 내에 존재하였기에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학문적 내용과 그 내용에 부합하는 활동을 기획해야 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은 수업을 짜야 했다. 이 점이 가장 어려웠고, 팀원들 간의 많은 회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었다. 그다음으로 고려했던 점은 수업하게 될 "캄보디아"의 특성이었다. 캄보디아의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수업 재료를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렇지 못하면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았다. 적절한 재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기에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 재료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기도 했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모습의 캄보디아를 직접 경험하고,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덥고 습한 기후 특성을 반영하여 녹을 수 있거나, 마르기 쉽지 않은 재료는 배제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5일 차의 수업이 고안되었다. 기획팀의 일이 학기와 병행되었기에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팀원이 함께 구상해낸 내용이 수업으로 실현되고, 그 수업을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보람됨을 느낄 수 있었다. 기획팀뿐만 아니라 모든 이화 봉사단 단원들의 아이디어와 다양성 덕분에 좋은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캄보디아에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1일 차, 2일 차는 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이화 봉사단 단원들이 수업에 대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 많이 어수선했다. 그래서 다음 기수의 이화 봉사단에게 초반에 수업의 체계를 잡아놓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수업에 가장 유익했던 시간은 회의(피드백 시간)이었다. 센터 내 선생님들로부터 매 요일 차 수업이 끝난 후 좋았던 점,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수업 진행에 전념하느라 바빴기에 이화 봉사단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센터 선생님들의 시각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 또한, 매일 밤 이화 봉사단 단원들 간의 자체적으로 전체 회의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에는 해당 요일의 수업을 돌이켜보며 피드백을 주고받았고, 다음 요일 차 수업을 시연해보고 함께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생들의 특성, 수업 장소에 대해 알지 못하여 이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점들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회의 덕분에 수업이 진행될수록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5일이라는 시간은 짧고도 긴 시간이었다. 학생들과 정이 들고, 이 학생들과 수업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 모든 수업이 끝나있었다. 학생들과 단원들 사이에 언어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학생들도 그 노력에 부응해주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 같다.

정*희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학생들과 즐거우면서 교육적인 시간을 보내기란 아무리 준비하고 연습해도 불가능 할 것 같았다. 5시간의 비행 후 도착한 캄보디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숨이 막힐 듯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그래서인지 캄보디아만의 향기가 더 느껴졌고 멋진 크메르어가 쓰인 빌딩들이 더욱 눈에 띄었다. 우리가 방문한 센터는 굽이진 골목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센터에서 첫날 학생들을 만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나름대로 어색함을 깨보려고 학생들에게 손을 이리저리 흔들어보고, 한껏 웃음을 짓고, 하이 파이브를 하고 주먹치기를 했다. 나도 학생들이 낯선데 학생들은 스무 명의 외국인들을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낯설까 걱정하며 더욱 더 열심히 다가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낯가림은 내가 더 많이 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상대가 누구든지 상대방을 무장해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

캄보디아 학생들이라고 특별히 한국 학생들과 별 다를 건 없었다. 똑같이 천진난만하고, 밝고 시끄럽고, 놀고 싶어 하고 호기심 가득했다. 당연히 조용한 학생들도, 쑥스러움을 비교적 많이 타는 학생들도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가 한국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적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고 배울 권리가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화봉사단에서 활동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지식적인 부분에서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으로서의 경험이 교육의 일부분으로 잘 남을 수 있을지 쉴 새 없이 생각했다. 수업 시간엔 조금이라도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했다. 그래서 조금 수줍음을 타고 뒤로 물러나 있는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나 또한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그런 학생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고 보조하면서 나에 대한 새로운 점들도 발견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뒤에 앉은 학생들에게 까지 내용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큰 소리로, 또랑또랑한 발음으로 말하려고 했다. 비록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말의 유창함, 발음의 정확성, 톤은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또, 내가 그렇게 몸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표정, 손짓, 몸짓, 발짓으로 수업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문장마다 제스처가 꼭 들어가도록 했다.

화석 수업을 하는 날, "땅에는 무엇이 묻혀 있을까요?" 하는 나의 물음에 학생들은 '플라스틱이요'라고 대답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캄보디아의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캄보디아가 특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라서가 아니라, 쓰레기를 사람들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할 여력이 없어서인 것 같았다. 소가 쓰레기를 뒤지고 학생들이 쓰레기더미가 있는 길을 지나다니는 광경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멀리 떨어진 나라 같지만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기에 연결되어있다. 갈수록 간편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지구촌 다른 이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살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일상에서의 내 행동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센터에서의 현지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선생님들과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이들이었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공통목표 하나만으로 매번 수업 끝나다 열렬히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노력했다.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 힘만으로는 힘들었을 것이다.

5일 동안 약 60명의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얼굴을 마주하고 살을 맞대면서 소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준비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은 됐는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학생들이 우리와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배운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구나, 학교란, 센터란, 재밌는 곳이구나!' 라는 것만이라도 느꼈더라면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원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처음 캄보디아 공기를 마셨을 때 한국과 차원이 다른 습함과 더위 때문에 일주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호텔을 처음 보았을 때, 생각보다 훨씬 위생적이지 못한 시설 때문에 조금 충격을 받았지만, 놀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을 건 강하게 보낼 것을 다짐하였다.

다음 날 뚜어슬랭 박물관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프놈펜의 시내를 보게 되었다. 중량청 정도 되어 보이는 하천에 등등 떠다니며 유튜브 영상에서만 볼 것 같은 쓰레기 섬과, 그 옆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며 캄보디아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피부에 와 닿았다. 특히, 베트남이 전기 공급을 중단하여 한 나라의 수도인 프놈펜의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쓰레기 섬을 보았을 때 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봉사가 시작되고, 설렘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너무나 해맑고, 밝은 아이들을 보며 앞으로 봉사가 재미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1일차 오후를 맡게 되었는데, 오전과 달리 아이들의 연령대가 더 어렸고, 좀 더 조용한 분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조 보다는 활동 진행하기에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다.

그렇게 남은 일정에도 보조교사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었다. 낯을 가려서 선생님의 지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봉사 활동할 때도 그랬듯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플레이콘으로 동물을 만들었다. 다 하고 나서 아이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줄 때, 그렇게 사소한 도움에도 좋아하는 아이를 보며 내가 더 고마움을 느꼈다.

센터 화장실에도 물이 가끔 안 나왔고, 에어컨은 틀었지만 한국처럼 시원하지 않았다. 가끔씩 더위 먹은 것처럼 너무 졸리고, 배도 아팠다. 하지만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는 설렘이 그 모든 고충을 잠깐이나마 잊게 해주었다.

활동 중에 아이들의 꿈을 부채에 적는 것이 있었다.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 등 각자 자신의 꿈을 그려 넣었다. 수업 이전 오티를 하면서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즈로 인해 지식인층이 단절되었으며, 그 여파로 인해 자국에서 스스로 대학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석·박사를 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 설명을 떠올리며, 이 아이들 중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아이들이 대다수이며, 국가 또한 이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최*영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이 행복했고 많이 배웠던 봉사활동.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준비하며 참 많이 어렵기도 했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우리가 주제부터 활동까지 모든 것을 정해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이 필요하고를 전부 정하며 교안을 작성하고 영문 교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계도 많이 느끼고 아이들과 과연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점점 교안도 서로의 피드백 속에서 마무리 되어가고 다들 영문 교안을 열심히 외우며 아이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정말 문제는 없는지, 캄보디아의 환경 속에서 이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을지, 혹시 수업 중간에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와 같이 사소한 문제부터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상황들까지 모두 생각하며 봉사활동을 준비하니 점점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국하기 전까지 영문교안을 외우고 확인하고,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언니들과 친구들의 모습에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하며 만난 아이들은 너무 예뻐습니다. 아이들 한명 한명 우리에게 인사해주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에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진행하는 모습에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록팀 영상제작을 위해 정리했던 사진과 동영상에서 1일차 때는 아이들과 우리가 처음 만나서 친하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서로 같이 노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 만날 날부터 아이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불러주려 노력하고 한명이라도 뒤쳐지지 않고 모두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봉단 단원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1일차 수업을 할 때 사실 처음이라 정말 많이 긴장하고 사실 조금은 두려웠는데 앞에 나가서 실제로 수업을 하니 아이들의 그 집중하는 시선이 너무나 예뻐고, 우리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막상 캄보디아에 가보니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깜짝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수업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다들 재밌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일차부터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모두 수업 진행하느라 너무 너무 수고 많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과 교류 할 수 있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2층으로 올라오고 싶어서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 우리가 도착하면 아이들이 모두 나와 인사해주고 하이파이브했던 모습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점심시간, 쉬는 시간 마다 아이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말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 크메르어를 공부하던 우리 단원들의 모습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돌아와서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주셨고 성공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 계은영 선생님과 안현정 교수님께도, 준비과정부터 수업, 돌아와서 회의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이봉단에서도, 캄보디아 센터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원활한 수업을 위한 도움을 주신 캄보디아 현지 선생님들께도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수업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했었는데 서로 수업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고 응원해준 1일차 수업 언니들에게도, 매일매일 저녁에 회의하며 마지막날까지 촬영하느라 고생한 우리 기록팀 언니들에게도 많이 감사하고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봉단을 잘 이끌어준 리더 언니, 기획팀, 물품팀, 기록팀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았고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많이 감사했고 소감문을 쓰다보니까 캄보디아 센터 아이들이 보고싶네요오 ㅎㅎ 많이 행복했습니다아♥♥♥

한*원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화봉사단은 내 대학 생활 목표 중 1순위였다. 형식적이고 반강제로 해야 하는 고등학교 시절 봉사와는 달리, 이화봉사단에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봉사 활동을 기획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외봉사의 모집 공고가 떴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쓰고, 운이 좋게도 면접에 합격해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날 수 있었다.

첫 오리엔테이션 당일, 학문관 소극장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은 부분은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에 관한 설명이었다. 자원봉사란, 시혜적인 태도(For)에서 떠나 상호 존중하며(With) 서로에게 득이 되는 윈윈(Win-win)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하러 갈 나라가 우리나라와 경제, 생활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 부분을 통해 내가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트라우마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교육을 들으며 나는 봉사를 하는 의의와 목표, 마음가짐 등을 새로이 가질 수 있었다. 캄보디아의 환경 차이를 인정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한, 나는 캄보디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지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아이들에게 이러한 인식과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몇 번의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교육의 주제를 '우리가 사는 지구'로 정했다. 그리고 각 일차마다 해야 하는 세부 활동도 대략적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다. 캄보디아 센터 아이들의 연령대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최대한 간단하고 편리한 실험 위주로 정했다. 좀 더 창의적이거나 심도 있는 활동도 하고 싶었지만,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포기했던 것이 아쉬웠다. 종강 이후 2주 동안은 학교에 거의 매일 모여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교안을 수정하고 대본을 외웠다. 아침 일찍 모였기 때문에 피곤하고 대본을 외우는 시간이 지루했지만, 캄보디아로 떠나는 날을 생각하며 참고 견딜 수 있었다. 더불어, 내가 속한 3일차 바다팀 사람들을 비롯해 봉사팀의 많은 사람과 친해질 수 있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후 첫날은 뚜어슬랭 박물관에서 크메르 루주와 관련된 역사와 함께 킬링필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주 시절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잔인하게 학살되었고, 캄보디아 전체의 문화, 경제, 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퇴보했다. 박물관 안에 사람들을 가뒀던 좁은 감옥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절이 떠올라 동질감이 들었다. 박물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불상과 해골들 앞에서 나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출국 전 사전조사 시간에 배웠던 역사의 흔적을 눈앞에서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5일 동안 매일 현지에 있는 이화봉사센터에 갔다. 매우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힘든 표정을 하지 않고 최대한 밝고 웃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했다. 아이들은 매우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다. 작은 그림 하나 그릴 때에도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엄지를 치켜세우며 서툰 크메르어로 칭찬을 해주면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 배시시 웃었다. 물론,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옆에 있던 친구와 장난치거나 떠드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런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진행했던 수업에 매료되어 열심히 활동에 참여했다.